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7년 1월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경제> 공공

정권별 공무원 급여인상률 비교

김영훈 실장·이수영 팀장

2017년 공무원 급여는 3.5%인상되었다. 공무원 급여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무원(공공부분)의 급여는 시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만큼, 급여인상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검토하고 민간과 비교한 공무원 급여수준을 비교한다.

1. 박근혜 정부, 역대 정권 중 공무원 급여 인상률 가장 높아

□ 횡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웃도는 급여인상 횡수는 노무현 정부 2회(2004, 2007년도), 이명박 정부 3회(2011~2013년도), 박근혜 정부 3회(2014~2016년도)임.)

□ 통상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민간부분의 협약임금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함.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민간부분의 협약임금인상률 보다 높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도 한차례**(공무원 급여인상률:3.8%, 협약임금인상률:3.7%)임

【표 1】 정권별 공무원 급여과 물가상승률

(단위:%)

정권별 구분	평균 급여인상률(A)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B)	차이(A-B)
노무현 정부	2.4	2.9	- 0.5
이명박 정부	1.7	3.3	- 1.6
박근혜 정부	2.8	1.0	+ 1.8

- 각 정부의 1~3년을 비교함.

1) 박근혜정부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관계로 1~3년만 대상으로 함.

□ 역대 정권은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집권기간(1~3년) 평균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공무원 급여를 인상함. 노무현 정부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9%, 급여인상률은 2.4%임. 이명박 정부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 급여인상률은 1.7%임

- 반면, 박근혜 정부는 저물가의 영향으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0%)임에도, 평균 급여인상률은 2.8%로 가장 높음.

2. 공무원 임금 적절한가?

□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2000년~2004년)」의 추진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무원 급여를 인상함. 이에 따라, 2004년 민간임금접근율이 95.9%까지 기록되기도 함. 이후 점차 낮아져 2015년에는 83.4% 수준임.

- 하지만 공무원 월평균 임금 자체는 민간대기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됨. 2016년 기준, 공무원의 월평균 임금은 491만원으로 300인 이상 민간 사업체(482만원) 보다 높은 수준(【표 2】 참조)

- 높은 고용안정성과,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의 특성상 생애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처우가 낮다고 볼 수 없음.

- 4년제 대졸 및 대학원졸 청년층 미취업자 48만 7천명 중, 1/4에 달하는 12만 7천명이 공무원 수험생일 정도로 공무원 선호도는 높은 수준임.²⁾ 이는 공무원의 처우가 낮지 않다는 것을 반증함.

【표 2】 공무원과 민간의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원)

	공무원	300인 이상 사업체	300인 미만 사업체
월평균 임금	491만원	482만원	307만원

- (인사혁신처) 201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2016.4)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2016.7.)

2)(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Issue Brief 49호 ‘청년층의 취업관련 시험 준비 실태’(2014.4)

3. 결 론

□ 민간부분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임금을 포함한 근로여건이 결정됨. 반면, 공무원은 시장을 통한 적정 임금 결정이 어려움. 따라서 공무원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 직업 안정성 등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통상 급여는 생산성과 연계되어 평가되어야 함.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한국 공공(公共)인력의 역량은 국내 민간 분야 인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도 임금은 25%더 받는 것으로 나타남³⁾.

□ 박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 공기업 부채 등 공공부분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움. 이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임. 반면, 박 정부는 하방경직성이 강한 공무원 급여인상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 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됨. 그런 만큼, 공직에 대한 대내외의 평가와 함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3)(한선재단)한국 공공 인력 역량에 대한 실증 분석, 이주호, 2016.2.18

【첨부 1】 노무현~박근혜 정부, 공무원 급여 관련 주요 지표

(단위: %)

정권	연도	공무원급여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협약임금인상률 (민간부문)	공무원 민간임금접근율
노무현정부	2004년도	3.9	3.6	5.3	95.9
	2005년도	1.3	2.8	4.8	93.1
	2006년도	2.0	2.2	4.9	91.8
	2007년도	2.5	2.5	4.9	89.7
	2008년도	2.5	4.7	5.0	89.0
이명박정부	2009년도	0.0	2.8	1.8	89.2
	2010년도	0.0	3.0	5.0	84.4
	2011년도	5.1	4.0	5.2	85.2
	2012년도	3.5	2.2	4.7	83.7
	2013년도	2.8	1.3	3.5	84.5
박근혜정부	2014년도	1.7	1.3	4.2	84.3
	2015년도	3.8	0.7	3.7	83.4
	2016년도	3.0	1.0	3.5 ⁴⁾	-

- (e-나라)공무원 보수추이 / (국가지표체계)물가상승률, 임금결정현황을 바탕으로 재구성

4) 2016년 11월 기준.